

데스크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수년 만의 미술 담당 기자 복귀 후 첫 현장 취재는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 기자회견이었다.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침 아시아문화전당 전시 취재차 광주를 찾았던 서울 지역 기자들까지 합류해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5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 자리엔 광주일보가 '미리' 썼던 대로 김선정 선재아트센터 관장이 선임됐다. 당시 '유력'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전국적인 지명도와 해외를 포함한 미술계 네트워크, 광주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를 역임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위원장을 맡아 광주와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대표 공백으로 예술감독 임명이 늦춰진 상황에서 예술을 '잘 아는' 데다 처음으로 행사가 용봉동 전시관이 아닌, 문화전당에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당에 익숙한 김 대표 선임은 괜찮은 카드였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 대표는 조금은 긴

신임 비엔날레 대표이사의 행보

장한 듯했지만 차분히 질의에 응했다. 재단이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비엔날레 자선이 광주에 남도록 하는 방안 강구, 교육과 아카이빙 확대, 광주 예술계와의 소통 강화, 어린이·가족 단위 관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추진 등 소신을 밝혔다.

지역과 소통 눈길 끌지만

질문의 또 다른 축은 경영자로서 김 대표의 비전이었다. 대표 내정 기사가 나갈 당시 그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있어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한 지역 문화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했다.

현 대표이사는 최근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이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대폭 가져 오며 지위가 막강해졌다.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이사회 개최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재단 운영 총괄은 대표이사 가 맡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권한이 많아진 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들도 늘어났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문화계는 문화적 소양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한 기업 후원 등을 이끌어 낼 경영 마인드도 함께 갖춘 수장을 요구해 왔던 터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큐레이터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원론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특

히 문화관광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예산 감소 문제 등은 '발등의 불'임에도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주었다.(일곱 차례 이상 국고 지원을 받는 국제행사는 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비엔날레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기업 협찬 등에 대해선 "비엔날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기업 '스폰' 등을 받는 것은 쉬울 거다", "전임 대표이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예전 이용우 대표이사가 했던 역할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왔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깜짝 놀랐다. 당시와 지금은 대표이사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바깥쪽만 일이다. 최근에는 '비엔날레와 차를'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기획도 시작했다. 아제는 첫 행사로,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강연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지역 작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회견 당시 김 대표는 웃으며 "큐레이터 출신이다 보니, 예술감독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생

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난 기자회견 때 서울 기자들은 '큐레이터' 김선정에 익숙한 탓인지 내년 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런 내용은 예술감독에게 물을 사항이고, 전시장 구성 등은 전적으로 예술감독이 맡아서 진행할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이 발언은 꼭 지켜야 한다.

예술감독 역할 넘어서야

김 대표가 세겨야 할 것은 자신의 역할이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분간 이사장 권한 대행 역할까지 하는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다.

현재 비엔날레는 일몰제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85억 원 규모의 비엔날레 기금은 지난 2007년 이후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비가 세는 노후화된 전시관 문제 역시 골치덩이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 후원 유치도 급선무다.

물론 예술과 경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익숙한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 왔던 기획자로서의 특장은 살리고, 경영과 행정 쪽에서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뚫고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아시아문화전당과 나는 답답하다



박홍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했다. 문화전당부지 결정에 5월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문화전당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는 경계인으로 있었다. 관련 공청회가 많았다. 광주에 사는 동안 최대의 공공프로젝트가 될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스스로에게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어린이 문화원이다.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당 콘텐츠에 무엇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인가를 논할 때, 시민들이 어린이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어린이문화원이었기에 2순위에 있던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찌 되었든 이는 실현되었다.

둘째, 인근 부설주차장 확보의 필요성과 가능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옛 광주주요 부지가 인근 부설주차장이 되어 일부라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당시 제시한 대안에는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나의 일부 역할은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문화전당 프로그램 결정과 부지 활용 범위를 논할 때 옛 전남도청 본관을 활용하고, 별관은 절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과정에 5월 단체의 누군가도 있었다. 건축과정에서 '랜드마크'와 '별관 절거' 논란이 있을 때, 나는 경계인에서 약간 내부에 있었다. 일반 및 방송 토론회,

인터뷰에 여러 번 참여했기 때문이다. 기획과정, 설계자 선정, 설계안 확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한 것이, 시공과정에서 다시 나왔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남아 있는가? 중요한 시기에 2년여의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물로 남아 있는 별관의 반복 모습과 문화전당의 어정쩡한 주 출입구, 민주광장과 도심으로의 부족한 확장성 등 건축가의 눈에는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이때 도 5월단체가 핵심이었다.

문화전당이 개관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옛 전남도청 복원'이 지역에 이슈다.

옛 본관에 설치된 '518민주평화기념관'은 완성되었으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운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광장을 지날 때 마다 대형 현수막에, 자극적인 빨간 글씨로 유적지 복원을 외치는 것을 본다.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원한다면' 복원한다.

그렇다면 1980년 5월로 복원인가. 전남도청 사무실로 사용하던 당시로 복원인가. 왜 그런 복원이 필요한가. 복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부족한가. 복원했을 때 무슨 가치와 의미를 다수의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간 지역사회에선 완공될 때 까지 물라다는 이야기 인가. 할 때는 몰랐는데,

한 것을 보니 '이게 아닌가봐' 인가. 등등... 답답하다. 난 지금 논쟁의 경계 밖에 있다.

그런데 '왜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모두가 이에 동조하는데 나만 이상하게도 답답하게 느끼는 것인가. 혹시 집단 무관심에 빠진 것은 아닌가. '말해봤자' 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 많은 지도자나 시민단체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현시점에서의 이런 논란이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생산적 논의조차 없음을 깊은 의문을 가져본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물이 고인 것과 같다. 고인 물은 썩는 데...

2017년 8월 나는 광주에 산다. 광주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그러나 일련의 문화전당 탄생과정과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현주소인가?' '이게 광주인가?' 혼돈스럽다. 아시아문화전당과 나는 답답하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란 말이 있다. 이는 과거 기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지, 과거 기억에 함몰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기에 답답하다.

社說

'민주화 성지' 삭제 외압 의혹 철저히 밝혀야

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다. '폭력·불법 시위 엄단'이라는 경찰의 상투적인 경고 대신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말이 눈길을 끈 것이었다.

이 게시물은 다음날 돌연 삭제됐는데 광주일보가 당시 광주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 전 청장은 이 청장의 삭제 지시 의도에 대해 당시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던 강 전 청장이 었그제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직원의 아이디어로 '민주화의 성지'란 표현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다"면서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을 받고 삭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강 전 청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이 청장이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근무하니까 좋소?"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이후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고 집중 감찰을 받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결국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이에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공방을 끝내려면 보다 중립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예산만 낭비하고 만 통합거점 경로당 사업

광주시는 노인들에게 쾌적한 여가 생활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거점경로당'을 지어,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주월동의 경로당 5곳을 통합해 22억 원의 예산으로 2층짜리 대형 경로당을 지은 것이다. 현대시 시설로 지었으나 정작 노인 이용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

통합거점경로당은 1층에 일자리 안 내실·자일봉사 사무실·식당·북카페·할아버지방·할머니방이 있고, 2층에는 로컬푸드 판매장·프로그램·휴게데크·육상정원 등 기존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됐던 만큼 노인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가 내실 있게 추진했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통합거점경로당은 활성화되기보다는 경로당에 대한 전 수조사를 실시, 단계적으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곳은 중장기적으로 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 못한 것은 시가 의욕만 앞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 대한 현황과 여건 등 기본적인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빛고을노인복지타운을 비롯한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 노인들과 달리 일반형 경로당을 지은 것이다. 현대시 시설로 지었으나 정작 노인 이용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 통합거점경로당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다. 이 기회에 통합거점경로당 사업은 확대하기보다는 경로당에 대한 전 수조사를 실시, 단계적으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곳은 중장기적으로 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無等鼓

'킬링필드'의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에 건립된 제1호 광주진료소가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가 건립 및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지역의 의료 단체와 병원, 종교 단체, 기업체들의 자발적 봉사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 프놈펜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캄퐁스푼주(州)에 소재한 진료소에는 광주의료계가 기증한 초음파, 세극등 현미경, 내시경 등 웬만한 첨단 의료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다. 3년간 이곳을 다녀간 환자는 연인원 4만5000여 명에 이른다.

슬픔들이 그것이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돕고, 나누고, 베푸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광주 정신'이 모여 시작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민간과 지방정부 시 서로 협력해 이른 성공적인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ODA사업에 대해 쇠신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사업들이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추진되던 시기에 비해 투명성과 실적성이 없었기 때문이

광주진료소

그 대표적인 예다. 일부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ODA사업은 국가 간에 맺은 중요한 약속이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고 호들갑만 떨 것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광주진료소를 정부가 새로운 민간·지방정부 협력의 새로운 ODA 모델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기 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전일빌딩과 전두환 그리고 옛 전남도청

구소의 검증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광주 시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왜냐하면 전쟁상태도 아닌데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국군이 헬기 사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일당은 헬기사격에 대한 주장을 5·18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유언비어라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은 최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처음 세상에 알린 조비오 신부와 아놀드 피터슨 목사를 "종교인의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누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인지 명약관화해졌다. 만약 전일빌딩의 탄흔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전두환의 회고록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더욱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

전일빌딩의 총탄 자국은 시간은 흘러

도 진실은 규명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가 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기억 투쟁뿐만 아니라 진실을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의 보존 또한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0년 5월 당시의 실제적 진실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들이 여러차례한 이유로 사라지는 현실이다. 옛 전남도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 공간이자, 계엄군의 집단 발포 장소였던 옛 전남도청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했다.

시민군의 주요 활동 공간이었던 도청 본관은 5·18전사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시민군이 상항실과 방송실로 이용했던 공간은 새롭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흔적 자체가 사라졌다. 1980년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절박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던 공간을 대체하고 편의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새롭게 단장한 옛 전남도청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37년 전 광주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도 담지 못하고 있다. 사라진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시 콘텐츠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물론 그 과정에 또 많은 역사적 공간이 사라지거나 변용되었다. 괴이한 리모델링이 아닐 수 없다. 공공로케도 옛 전남도청 본관의 리모델링 기간은 보수정권이 5·18민주화운동을 부당하게 왜곡하고 폄훼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5월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는 옛 전남도청의 모습은 진상규명에 기반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화려해졌지만 역사가 사라진 옛 전남도청에서 전두환의 궤변은 힘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쇠락했지만 국가폭력의 역사를 간직한 전일빌딩에서 전두환의 주장은 단박에 거부된다. 진실의 목소리는 백 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하나의 역사적 공간 자체일수도 있다는 것을 전일빌딩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시급하게 옛 전남도청의 복원사업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상·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